

전북 교육 소식



“한국 문화 이해하는 기대감 크다”

미 국무부 파견 고교생 15명, 도교육청 한국어 ‘교육’

올해로 4회째 맞이한 전북도교육청 주관, NSLI-Y 프로그램이 지난 6월 23일 전주제일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15명의 미국 고교생들이 8월 5일까지 무더운 여름동안 낯선 한국어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에서 선발하여 파견한 학생들로 미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프로그램의 장학생 수혜자들이다.

NSLI-Y는 미국 정부의 주요언어교육프로그램(NSLI)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 국적 학생들이 주요 언어 사용 국가에 파견되어 현장에서 해당 언어와 생활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도 이 프로그램의 해당 언어이다.

이 중 현지 체류 단기 돌입형 한국어 교육은 2014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4차년도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장을 전주제일고로 결정하고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또한 홈스테이를 하게 될 15가정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마쳤다.

6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된 미 고교생들은 8월 5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전일 홈스테이를 하게 되며, 총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100시간에 이르는 체험형 한국문화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전주의 다양한 명소를 볼거리, 인플 등을 직접 만나보는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이 매주 1회 진행되며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 디렉터 김병영 박사는 미 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업을 하게 될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일 미국식 언어능력 측정 프로그램인 OPI에 대한 사전 연수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한국어 수업 교재 또한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 국무부측에서 괄목할만한 교육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작년 OPI 측정 결과, 수료생 17명 중 12명이 기대치를 두 단계 이상 뛰어넘는 성적을 받았으며, 3명은 기대치보다 한 단계를 뛰어넘는 성적을 받았다.

미국에서부터 이들을 인솔하고 온 현지생활 담당관 잭 조프리 페더그래스는 “지난 3년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전주를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찾게 되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며,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이며 무엇보다 다른 문화와 생각을 지닌 외국 학생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크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게 되는 전주가 학생들에게 한국의 고장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을 지도·생태체험하고... 방과후 마을학교 ‘진화’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90.1% 만족도 보여 학생 89.1%, 학부모 92.8% 만족감 드러내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에는 대흥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있다. 지난 2014년 정읍 마을 만들기 중앙대회에 참가해 부리단체에 선정되기도 한 대흥리 마을교육공동체(대표 김상기)는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활동 중에 있다.

회원들 중에 동화작가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단체는 15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탐방, 각종 체험활동, 자연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후 1시 이후 풍물, 바이올린 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자연·생태 체험 등이 결합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격일 단위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에도 18개 방과후마을학교와 3개의 지역사회 돌봄교실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상관초등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생태체험, 실예업에는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생활공예, 토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봉동읍에는 품앗이 배움터 누리교실이 오감체험 영어교실을, 고산면에는 오산학교교육공동체가 기초학력지원과 독서습관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구이면에는 음악놀이체험회,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겨우 투오일마다 우드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방과후 마을학교는 기관당 380~4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완주군 고산면, 봉동읍, 소양읍 3곳에 운영 중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교실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내에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지원을 받는 방과후마을학교가 96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전주 5개 기관, 완주 23개 기관은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 운영 현황을 보면 ▲전주 20곳 ▲군산 5곳 ▲익산 6곳 ▲정읍 5곳 ▲남원 6곳 ▲김제 3곳 ▲완주 23곳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들 기관에 총 4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들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강사도 14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운영한 총프로그램 횟수는 1,327회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2회 등 연중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기관을 선정해 오고 있다.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90.1%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였고, 학생의 89.1%, 학부모 92.8%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 3년을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해외 나눔 행사 추진, 기부활동 적극 전개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3월 27일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발전도상국가의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생활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월 도내 6개 시 지역과 완주

군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생활용 물품을 기부 받아 아프리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완거리 소재 군 지역은 물품 수집 및 운반 거리를 고려해 제외했다.

기부 물품은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등 4종으로 한정했으며, 어린이용부터 성인용까지 모두 가능하다.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은 7월 10~12일 수거한 뒤 1~2차 선별과검과 비스와 작업을 거쳐 컨테이너에 적재해 해외 운송을 통해 아프리카 짐바브웨 스카우트 연맹에 물품을 보내며, 현지 스카우트 단원 및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에 시 개최와 전북이 세계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생활용품 기부를 통해 세계잼버리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기부 실천을 통해 자녀들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잼버리 대회는 민족,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스카우트의 세계화사업이다. 2023 대회 개최국은 오는 8월 16일 최종 결정된다.



전북대 국제화사업단

창원대와 함께 해외봉사

전북대학교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조경호·이하 국제화사업단)’과 창원대학교 CK-1 글로벌다문화사회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문경호·이하 다문화사업단)은 공동으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함께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해외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유발과 체험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저개발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국제화 사업단 18명(직원 2명, 학생 16명)과 다문화사업단 29명(교수 2명, 직원 1명, 학생 26명) 등 총 47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세일럼에 위치한 현지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봉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지 대학인 프놈펜대학교와 협력해 물품을 통해 현지마을을 지원하며, 현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이가 프놈펜대학교 학생 9명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단원에게는 현지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왕복항공권, 현지제재금비 일체를 지원하며, 봉사활동 기간 중 현지 문화탐방의 기회도 제공된다.

송기도 전북대 국제화사업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단순 봉사의 의미를 넘어 전북대의 창원대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영·호남 대학생 교류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데스크포스팀 운영,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데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6월 29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서와 정책

연구소, 전라중·양현고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중학교는 학교협동조합 인가 신청에 있고, 양현고는 설립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팀은 협동조합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갖는 한편 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에도 나서 이르면 시일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작업도 서두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내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부서도 두며 학교협동조합을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인식 확산에 나선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단위 학교의 협동조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학습동아리, 협동조합 시범학교 운영, 매점 운영학교 및 특성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워크숍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는 총 49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학교매점이 35개(71.4%)로 가장 많고 방과후학교 7개(14.3%), 진로교육 4개(8.2%), 농업 2개(4.1%), 교재·교부 1개(2.0%) 순이다. 또 전북 도내 342개 중·고등학교 중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는 68개 학교(19.9%)이며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59개 학교다. 한편 전라중학교는 지난해 5월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원 직영 매점을 갈차로 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인가 신청 중이다.

Advertisement for 'Smart Library Experience' (스마트 도서관 체험) featuring a child reading and various educational resources. Text includes: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 학 스 마 트 체 험 도 서 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문의처 이 지원', '010-5488-2617', 'seohwa@seohwa.com', '1995-2017', '0508-111-911'.